

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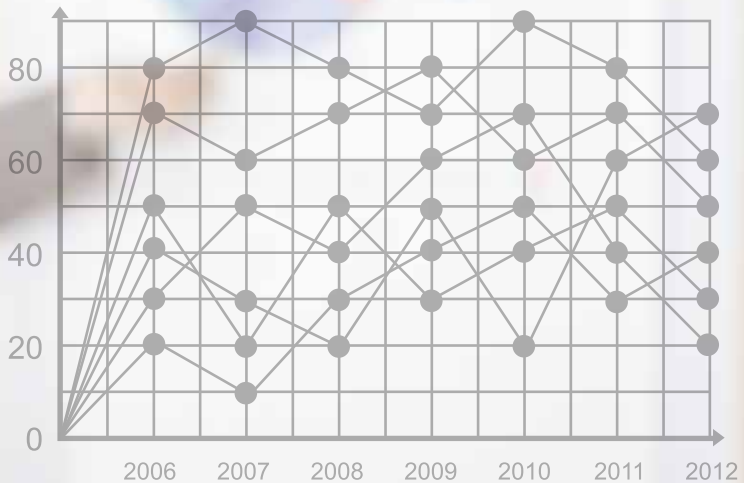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경영저널

Hot Issue 도시가스 요금,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정책제안 자원기반 이론과 무역강국 한국
시사in 행정심판제도, 무용지물
커버스토리 강영석 경상북도 상주시 시장
지자체가 된다 K-농업 전초기지 경북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직문화 떠나는 MZ 공무원
상주시 산업 상주시 이차전지 클러스터
Economy 2024년 집값 전망
칭찬합시다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지향

60TH
2024 4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24



- 06 **청호(靑浩)칼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다.
- 08 **Hot Issue**
도시가스요금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 10 **정책제안**
자원기반이론과 무역강국 한국
- 12 **시사 in**
행정심판제도 무용지물
- 14 **커버스토리**
상주시 강영석 시장
- 20 **지자체가 뚫다**
'K-농업 전초기지' 경북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22 **조직문화**
떠나는 MZ 공무원
- 24 **산업**
상주시 '이차전지 전지클러스터'
- 27 **축제**
비슬산 참꽃문화제
- 28 **Economy**
2024년, 집값 전망
- 30 **인재 (포커스 리딩)**
'한북기능장 청담채한복 대표' 나진선미

20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 속 쉼터
자연의 풍요로움과 배움의 성장
교육과 힐링의 중심 대경교육원



대경리조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시설 및
편안한 쉼터의 숙박시설, 양질의 식사, 각종 체육·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청통와촌IC에서 5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수려한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경리조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Home Page: www.dghrd.co.kr



- 30
- 32 **경제 산책**
경제 산책
- 36 **기업탐방**
'3대를 이어온 청년기업' 이화정 양식장
- 39 **칭찬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꽃을 피우자."
- 40 **음식명가**
'중동감나무집'
- 42 **초대석**
청년들의 서울 이주, 그 해답은 무엇인가?
- 44 **축제**
의성, 경주, 고령, 청도 축제
- 48 **법과 제도**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
- 50 **대구 단신**
대구생활문화센터 공연 희망 동호회 모집 외
- 52 **경북 단신**
경북도는 2024년을 새마을운동 대전환 원년으로 외
- 54 **불편한 진실**
대학정시, 모든 것을 1월 중으로 마감해야

경영저널

통권 제60호

발행인	이진구
편집국장	김문철
취재	김용우, 이가운, 이경운
사진	신영민
편집디자인	김수영
편집위원	조대영, 윤일형, 권기환
디자인·인쇄	워크스 대표 김정석
발행처	http://www.경영저널.com
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산. 라 00011
창간	2007년 11월 5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7369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100,000원
정가	10,000원
예금주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은행 225-12-003611
	농협은행 301-0258-049101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 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bmjglobal999@gmail.com
전화: 053)766-1368~9 FAX)766-0379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인 '유스티티아 상'이다.

최근 사법농단, 재판도중 재판장의 중도사태, 그리고 강제동원 사건 등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통치 조직원리다.

우리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J.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1748년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문서화 되는 것은 영국의 대헌장에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1787년 미연방헌법, 그리고 1791년 프랑스 헌법이 채택하여 권력분립이 정착되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존립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부여함

으로써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이는 사법부가 바로 서야 법치주의 확립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가가 존립한다는 대명제이다.

과연 사법부는 시대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는 지, 스스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만 한다.

우리 사회가 빠른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물질 만능주의로 사법부를 몰들고 있다.

심지어 판사로 임용된 사람이 의사의 수입을 부러워하고, 엘리트 젊은 판·검사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고질적인 재판지연, 판사의 성향, 과다한 업무, 그리고 부족한 운영지원비 등 해결책을 모색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추후에 법률안 제출권, 독자적 예산편성권과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등 법률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진구
대표이사·발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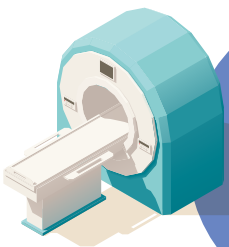


대경영상의학과의원 · 건강증진센터
HEALTHCARE & IMAGING CENTER DAEGYEONG

예약 및 문의전화 053.742.0100

카카오플러스친구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매일매일 건강한 일상 행복한 미래설계



최신 지멘스 Skyra 3.0T MRI, 지멘스 Edge 128CH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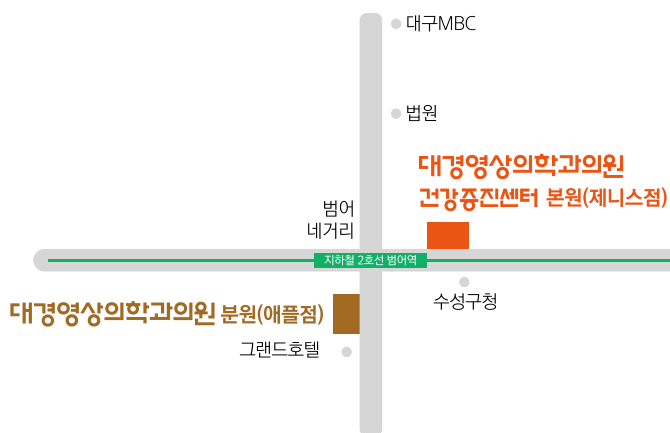
대경영상의학과의원 · 건강증진센터에서는
21명의 전문의가 · 최신 의료 장비 · 맞춤형 의료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을 조기에 진단합니다.

건강한 일상 - 대경건강증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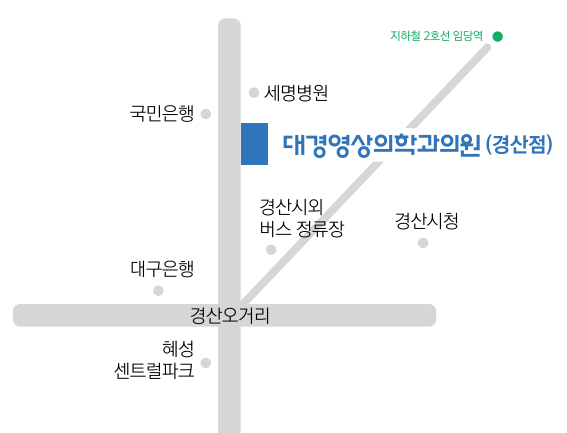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 5대 암검진
종합건강검진 · 생애전환기검진 · 직장인검진
최신의료장비 · NON-STOP SYSTEM · 당일결과



오시는 길



본원 [제니스점]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B2층 전화 053.742.0100
본원 [애플점] 그랜드호텔 옆 애플타워 2층 전화 053.770.7300



[경산점] 경산오거리 경도빌딩 3층 전화 053.744.0100

'도시가스요금'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서민들에게 있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은 가계 부담과 심리적 물가인식에 가장 민감한 요인이다. 여름이면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겨울은 아마도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요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7월에는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 겨울의 가스사용에 따른 소비자부담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최종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3% 이상이며, 소매요금은 7% 미만 수준이다.

지자체는 소매요금 산정을 위해 매년 공급비용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혹은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여 7월에 발표를 하고 있다.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2023년 경북도는 또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해 2022년 대비 평균 3.76% 인상하였다. 하지만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며, 권역별로는

△ 포항권역은 2.2208원/MJ(4.18%인상)

△ 구미권역은 2.2212원/MJ(4.98%인상)

△ 경주권역은 2.1602원/MJ(2.24%인상)

△ 안동권역은 2.5938원/MJ(3.64%인상)이었다.

그럼 올해 도시가스요금은 어느정도 인상될까?

3월부터 경상북도 도시가스회들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용역이 진행이 된다. 하지만 B-C유, 지역난방공급, 대용량수요처의 직도입 등 도시가스 사업환경과 여건의 변화,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가스 공급량의 감소는 올해도 공급비용 인상의 불가피성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일반시민들은 난방비 인상을 우려하여 전기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최근 겨울 기온의 상승은 난방사용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가스 공급량 감소는 도시가스회사의 단위당 공급비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작년 감액한 인상요인의 반영도 불가피할 것이다.



누적된 인상요인의 미반영분을 산정하여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인상폭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요금인상을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의 증가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의 잠재적 인상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 1조2100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15조3600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원가보다 낮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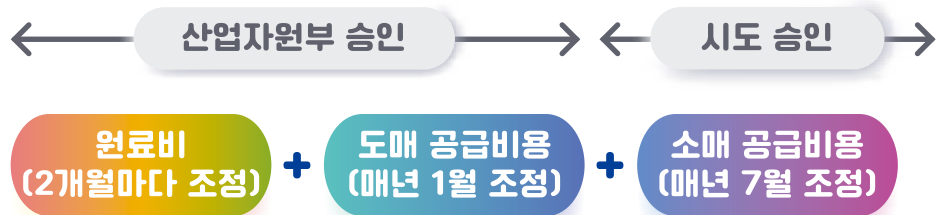
격에 가스를 판매함에 따른 영업 손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도시가스회사들의 공급비용인상 요구는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요금 현실화를 주장할 것이다. 이에 지자체는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지속 등으로 자원 확보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증가는 지자체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가스에 대한 공공재 성격 등을 고려하면 가스요금의 인상을 선불리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용역수행기관 또한 도시가스회사들의 공급비용 제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요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 될 것이다. 가스요금과의 직접 연관성을 분석하여 감액 조정을 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최종 검토안 제시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많고 경제상황의 변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속에서 올해 7월 어떤 해법을 가지고 도시가스요금이 결정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용우 차장



자원기반이론과 무역강국 한국



24년 2월 기준 무역수지 흑자 기록

24년 2월 수출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524.1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1억 달러, 무역수지는 4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하면서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에 비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큰 글로벌 통상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수출이 작년 하반기에 성장률이 회복하는 성정 흐름을 이끌었다」고 평가하였다.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 관점에서 본 한국 무역 경쟁력

한국은 한정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국가의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수

출을 기업들에게 장려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수출 중심의 정책과 기업들에게 수출 장려 정책을 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도 기업들에게 전략적 유연성 및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외국시장에 신속한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출일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수출성과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무역강국으로의 한국을 위해서 어떤 측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기고에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에 기반한 자원과 역량이 수출에 미치는 관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기반이론은 기업 경쟁 우위는 내부의 자원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론으로 Penrose가 1959년 발표한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이란 저서에서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후 Barney에 의해 1997년 가치(Value), 희소성

(Rareness), 모방불가능성(Inimitability) 그리고 조직배태성(Organizational Embeddedness)로 구성된 VRIO 모델이 제시되면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VRIO에 따른 자원 특성이 충족되는 수준에 따라 기업의 경쟁우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원을 보유한 기업은 그 자원으로부터 창출되는 VRIO의 수준에 따라 경쟁 우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자원이 가치가 없다면 경쟁 열위를, 해당 자원이 가치가 있지만 희소하지 않은 자원은 경쟁등위를 가진다. 가치가 있고 희소하지만 모방불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임시적 경쟁우위를, 그리고 가치가 있고 희소하며 모방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 경쟁우위를 가진다고 판단한다(신형덕, 2019).

자원을 통해 무역에서 경쟁우위를 가지는 사례로 중국을 살펴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매장량과 생산량을 가지는 희토류를 통해 중국은 세계 무역 시장에서 독점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최근의 디젤 연료 첨가제 수출 제한으로 한국의 국내 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경쟁우위 자원은 무엇이며 전략적 육성 정책은 있는가?

자원이 부족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경제의 기본 프레임일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 원천의 발굴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경제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자본, 사람, 토지, 자원 등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은 토지

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적 자원을 통한 경쟁우위 전략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을 통한 자원기반이론의 VRIO 특성을 강화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무역의 중심에 한국이 위치함으로써 무역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수출 대상국이 수입하고 싶은 가치와, 희소성 그리고 모방불가능성을 가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한국 무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인적 자원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비단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한국이 보유하고 무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요소들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에서 거래하고 싶은 가치를 가지고, 희소하며 모방불가능과 배태성을 가지는 자원의 확보와 육성 정책이 글로벌 무역에서 한국의 무역 성장을 담보할 것이다.

영남대학교 윤정현 교수

■ 참조

- 1) 신형덕. (2019). 자원기반이론의 흐름과 이슈: 전략경영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22(1), 1-16.
- 2) Barney, J. (1997), Gaining and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3) Penrose, E. (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New York, NY: Sharpe.



행정심판제도 무용지물

대구시의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는 지난 1월 29일 개최한 34건 중 1건만 인용되고, 나머지 33건은 일부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 등으로 행정심판제도가 시간낭비이며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행정심판하는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성 없는 법 적용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심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행정심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판재결이 나오고 부득이한 경우 30일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행정심판법이 되도록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쳐 국민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군구에 전문 법률가가 상주해야

시·군·구청장이 행정가 출신이거나 건설 등에 문외한일 경우 담당자 및 과장 등이 「NO!」 하면 사업 자체가 보류되거나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설관련 업무처리는 사안이 매우 복잡·다양하여 시군구에 전문 법률가가 상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의 해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 해설은 경험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부족과 아울러 책임지지 않는 소극적 행정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청 담당자는 도로부지임에도 도로가 아니라 행정재산이라는 법 적용과 함께 주관적 사건인 '수려한 경관', '영구시설', 그리고 '교통혼잡' 등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명백한 법 적용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구청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을 기각했다.

심판위원회의 심리는 전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했다.

구체적·실체적 심리가 아니라 행정 처분청 편들기와 형식적 심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경제적 시간적 낭비, 그리고 행정심판법의 실체적 진실에 어긋난 결정을 하였다.



이경윤 기자

아름다운 상주

경북 상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여행 중에 관광지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북 상주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곳을 정리해 봤습니다. 관광지의 추천 순위는 한국관광공사의 티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방문하는 관광지로 정했습니다.

경천섬 공원, 경천대 국민관광지, 성주봉 자연휴양림, 상주 자전거 박물관, 속리산 국립공원 화북지구, 중앙시장, 장강폭포, 화북 오송 탐방 자원센터, 남장사, 도남서원.

-아름다운 상주-



| 인터뷰 |

강영석

경상북도 상주시 시장

Profile

1966년 3월 11일 상주 출생

경신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

민주평통자문위원

제9대,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상도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민선7기 경상북도 상주시 시장

민선8기 경상북도 상주시 시장(현)

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그 면적이 3번째로 넓고, 경상도란 이름의 어원이 된 유서깊은 도시로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의 2022년 민선 제9대 강영석 시장을 만났다. 그는 평소 소탈한 성격이지만, 추진력을 갖추고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시정을 펼쳐 2023년 농업인의 날 상주시가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정을 이끈 지가 3년 반이 지난 지금 그 동안의 경영적 성과에 대해 얘기해 본다면?



2023. 7. 3. 민선자치 8기 1주년을 맞아 `우리의 상상으로 시대를 주도하는 상주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표방하였습니다. 시정구호인 저력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상주시는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좋은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는 물신회기의 자세로 달려왔으며, 지방소멸위험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펼쳐 왔습니다.

불과 3년 반 사이에 청리산단 문제를 해결하고, KTX에타통과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 유치전에도 뛰어 들었습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분양을 모두 완료하고, 198만 m^2 (60만평)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과 30년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확정지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경쟁을 벌여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모두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마중물이 되어 상주시를 더 나은 곳, 더 발전된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상주시의 산업지도를 바꿀 이차전지 클러스터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상주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본다면?



상주시의 산업지도를 바꿀 198만 m^2 (60만평) 이차전지 클러스터는 작년 2월경 SK에코플랜트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4년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수립과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올 하반기에는 경상북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보상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차전지 클러스터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기업의 투자유치가 몰릴 수 있도록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상주경제의 밑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지난해 상주시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하면서 얻은 교훈은 지역 내에 인력양성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주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는 신념 아래 상주시는 경상북도와 기업들, 그리고 경북대학교 및 실업계 고교들과 함께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양성을 통해 연구인력 및 기능인력 확보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특화비자 제도를 이용해서 외국 인재의 지역 내 기업 취업과 대학 진학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기업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330만 m^2 (100만평)의 단계적 조성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고, 청리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상주 일반산업단지 준공, 그리고 우량기업 입주 등 사업간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농업수도 상주시는 자타공인 농업중심도시라 말할 수 있는데, 도청이전 작업의 후속으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상주시로 이전하여 상주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기회를 얻었는데, 상주시의 농업 발전 방향을 짚어 본다면?



미래의 농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로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의 미래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IoT 기반의 고부가가치 디지털 농업을 확산하여 자생력 있는 귀농 인력과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 것은 농업중심 도시인 상주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첨단 농업단지이며, 스

마트팜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기자재를 연구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팜 관련 농업인,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을 집약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스마트 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고령화되고 성장이 침체된 농업 및 농촌에 유능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스마트 농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하도록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주시는 혁신밸리를 수료한 우수한 청년 인력이 지역내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창업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매년 50명 정도 규모로 교육을 받도록 혁신밸리내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겐 청년창업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이 교육, 주거, 그리고 창농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주시는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한민국이 지방소멸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소멸고위험군에 속하는 상주시가 소멸위험을 극복할 방안은 있는지?



상주시는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도전에 확실한 응전의 의지와 방안을 가지고 소멸이 아닌 중흥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군사시설 이전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 상주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상주시민의 인화단결이라는 3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할 일이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는 상주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주민구의 지속적 증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정주민구도 늘이고,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 등 여러 행사나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이나 휴식 등을 위해 지역사회를 방문하게 하여 그러한 생활인구, 체류인구를 늘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최근 준공한 만화특화 시립도서관도 다른 지역이 가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상주에 와야만 경험하도록 자연스럽게 생활인구를 늘이게 할 것입니다.

최근 언급되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할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 돌봄, 그리고 일자리를 통합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Q 경상북도 유일 만화 도서관을 준공했다는데, 그 의미와 운영방안은?

A 지난해 12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주시립도서관을 준공하였는데, 1월 중에 임시개관하고, 4월 중에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로 이 상주시립도서관이 경북 유일의 만화특화 도서관인 것입니다.

1층 만화특화공간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인기 만화 도서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2층 열람실 내에 오픈형 북카페를 조성해 시민들이 책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3층 문화센터에는 웹툰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웹툰 창작 체험관을 운영해 웹툰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올가을에는 도서관과 인접한 복룡동 시민문화공원에서 만화 및 웹툰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케오시는 인구 5만의 작은 도시지만, 시립도서관 하나가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상주시립도서관도 우방공원 및 어린이 공원과 연계해 일본 고치현의 만화 고시엔 같은 행사를 기획하여 전국의 청소년과 가족들이 찾아오게 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상주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A 상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밝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상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주신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상주시는 분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국가와 도시들이 번영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수많은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를 이어 왔으며,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성공과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방소멸의 위험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상주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자의 역사를 쓰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맡은 자리에서 너, 나 모두를 위해 열심히 뛰어 가고,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상상주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력있는 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K-농업 전초기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경

상주는 대한민국 「농업수도」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한다. 그 중심이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상주혁신밸리'라 함)가 될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상황이 상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인구가 감소하고, 영농지식 및 기술의 한계,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생산량과 소득이 감소하여 농촌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혁신밸리는 농업 및 농촌이 처한 시대적 현실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농업혁신을 선도할 첨단 스마트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 및 농촌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책사업이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다양한 연계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규모뿐만 아니라 기능 및 운영 측면에서도 전국 4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미래첨단농업 One-Stop 지원

스마트팜이란 AI·IoT·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해 유리온실 등에서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농장이다. 즉, 노동력, 에너지 그리고 양분 등을

적게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첨단 농업인 것이다.

혁신밸리는 생산·유통·교육·연구를 집약시킨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교육실습, 임대경영, 그리고 창농 및 주거까지 One-Stop지원함으로써 미래첨단농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사벌국면 일대 42.7ha 부지에 사업비 1,738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에 주요시설이 준공되었다. 주요시설로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제품개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실증단지를 갖추고 있다. 데이터 기반 영농환경을 지원하는 빅데이터센터 및 재배역량 강화를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도 조성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을 위한 One-Stop 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ESG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청년농촌보금자리, 문화거리,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 청년과 교육생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정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전문기술이 필요한 실증단지와 빅데이터센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포항테크노파크의 위탁운영으로 관리된다.

청년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농 육성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은 매년 18세~39세 청년 52명을 선발했다.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 등 각 생산분야를 20개월 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및 시설관리, 작물 생리·재배관리, 그리고 온실 활용을 통한 현장 견학 및 경영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한다.



스마트팜혁신밸리 내부



스마트팜혁신밸리 작물

2024년 4월까지 5기와 6기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수료생에겐 팀별로 임대형 팜 0.5ha를 임대하여 3년간 경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스마트팜 영농 경험 축적과 함께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체 수료생 중 절반이 넘는 52%가 창업농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벤치마킹 우수 사례 부상 -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이후 2023년 4월까지 10개국에서 150여 명의 인원이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갔고, 현재는 기관·단체들의 견학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중국 및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를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등 서양권 국가에서도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스마트농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고,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국제적인 농업 성장을 위한 성과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으로부터는 「온실환경제어 소프트웨어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전수받고, 후발주자 국가에는 ICT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자체를 수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세계 농업 기술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상주시는 해외교류와 대외홍보를 염두에

두고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CI)」, 「상주드림팜(BI)」 등 자체 브랜드도 개발하였다.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나아갈 방향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술집약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산·학 프로젝트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산학 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선·후발주자 농가 간 노하우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필수적이다.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시설재배의 특성상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점과 고소득 작물 위주의 재배로 품목이 단순화되는 등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 특히 농지 확보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이다. 농업인과 농촌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기반 조성 과 역량 강화에도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상주시는 올 7월에 시행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경북농업테크노파크(현 경북농업기술원)는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활성화와 성과 창출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 전망되어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편집국

떠나는 MZ 공무원

공적 영역 운영의 핵심역량은 인적·물적·기술적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공무원 조직 체계는 인적자원의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20~30대 MZ세대 공무원의 퇴직 및 이직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Z 공무원들의 조직 이탈과 지방정부의 조직 문화 변화

단순히 일시적인 공무원 노동력 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지방공무원의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지방 정부 조직의 전반적 운영, 전략 그리고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소가 된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MZ공무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대책에는 무엇보다 처우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자체 직원sns에는 '집에 가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글을 올리는 20~30대 MZ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MZ공무원들의 퇴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3만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는데 주된 원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임금 그리고 악성민원 증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파악하였으며,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를 꼽았다.

실례로 광주광역시 MZ공무원 40명과 40~50대 팀장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MZ공무원은 대부분 갑질로 답한 반면 팀장급들은 대부분 '아니다'라는 정반대의 응답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구성원 세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구성원 간 인식전환이 필연적이다.

연도별 공무원 퇴직자 수 추이 단위: 명



MZ세대 공무원의 특성과 대책

미래 공무원 조직의 중심은 MZ공무원들이다. 공직사회에도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로 인해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르고, 타인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그리고 집단보다 개인 문화를 중시하고 공정한 보상에 대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MZ공무원들은 지방정부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속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 그 외에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부담과 근무환경 등 다양한 원인이 MZ공무원들의 퇴직률을 높이고 있다.

MZ세대의 사회진출이 시작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MZ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 조직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내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무원 조직 내 「여전히 남아있는 경직된 조직문화」는 하위 공무원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근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의 맹목적인 강요보다는 업무 결정 과정에서 MZ공무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져야 한다.

지자체는 더 늦기 전에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복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조대영 편집위원

상주시 '한여름 밤의 축제'

행사개요

일 시 : 7월 중 (3일간)
장 소 : 북천시민공원 야외음악당
참여 인원 : 3,000여 명(일 평균 1,000여 명)
행사 목적 : 상주시의 여름 휴가철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 조성
주최/주관 : 상주시/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상주시회 외 3개 단체

상주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행사기본계획

일 시 : 9월 초순
장 소 : 북천시민공원
참 여 : 5,000명 (참전용사, 초청인사, 보훈단체, 학생, 시민 등)
주 최/주 관 : 상주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상주시지회
협조기관 : 국방부 (제50보병사단), 국가보훈처, 경상북도
행사내용 : 상주화령장전투전승기념식 및 시가지퍼레이드 행사

상주화령장전투 전사(戰士)

전투기간 : 1950. 7. 17 ~ 7.21
전투지역 : 경북 상주시 화서면 화령장
참가부대 : 국군 (보병 제 17연대), 적군 (보병 15사단)
경과

'50.6.25일 불법 기습남침 이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은 국군의 방어선을 와해시키기 위해 적 15사단을 대구방향으로 긴급 투입하였다. 이는 대구⇒부산까지 신속히 진격하여 남한을 조기에 점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주력부대 1개사단을 투입한 것이다.

북한의 의도를 알아차린 우리 국군은 북한군 15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17연대를 상주 북방으로 투입하였다.

화령장에 도착한 17연대 1대대는 주민신고를 받고 정찰을 하던 중 북한군 전령을 생포하고 적 15사단 48연대 이동에 대한 첩보를 획득하여 매복 기습작전을 준비하였다.

지금의 송계분교 일대에 도착한 적 48연대가 낮잠을 자거나 목욕을 하는 등 전장군기가 문란한 것을 확인한 대대장은 경계도 없이 식사를 위해 집결한 북한군 48연대를 기습공격하여 국군의 피해는 없이 적 1개 연대를 전멸시켰다.

다음날 2대대가 정찰 하던 중 북한군 전령을 생포하여 적 15사단 45연대가 후속하고 있다는 첩보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2대대가 동관리 계곡 일대에서 매복을 하였고, 적이 눈앞에 올 때까지 철저하게 사격군기를 유지한 가운데 완벽한 매복작전을 펼쳐 적의 치중대와 45연대를 잇달아 격멸시켰다.

시가지 퍼레이드 행렬구성

헌병 칸보이 1대 → 싸이카 5대 → 작전사 군악대 → 작전사 의장대 → 기수단 → 지휘차량 → 의장차량(참전용사 및 주요인사) → 사단군악대 → 행진병력 → 장비차량 → 3사관 군악대 → 상주시6.25회원

상주시 '이차전지 클러스터'



청리일반산업단지

미래 성장 동력 이차전지 메카 상주

농업 중심 도시로 알려졌던 상주시가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번엔 미래 에너지 핵심산업인 이차전지다.

상주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대규모 첨단 분야 투자유치를 잇달아 성공하며 '불황 속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에 자신감을 키운 상주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차전지를 주목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로봇, 전기차, 그리고 모바일 기기 등 산업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드론, 스마트 워치 등에 사용된다. 특히 전기차 급부상하면서 이차전지는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부품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들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하는 이차전지 산업은 국내에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이차전지 소재 산업 또한 양적·질적 고도화가 매우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상주시는 이차전지 핵심 연구와 재활용, 생산연구단지 조성까지 이어지는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차세대 첨단산업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SK그룹 날개 달고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박차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이차전지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세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한 강영석 상주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상주시는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업인 SK머티리얼즈그룹 포틴이 입주한 청리일반산업단지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및 무곡리 일원 197만㎡의 부지에 사업비 3,868억 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관련 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제조기업을 한 곳에 집적시키고,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이차전지 산업이 상주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핵심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를 위해 2023년 2월 SK에코플랜트(구.SK건설)와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재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상주시는 SK그룹이 밑바탕이 돼 이차전지 관련 제조기업이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집중 입주할 경우 산업벨트 형성에 큰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향후 상주시는 경북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 제정, 의회 승인 등 일

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21년 실리콘 음극재 특허기업인 SK머티리얼즈와 미국의 14 테크놀로지스 합작사인 SK머티리얼즈그룹 포틴은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제조공장을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하기 위해 상주시와 1조 원 이상의 투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실리콘 음극재 생산 본격화

2023년 4월 초 SK머티리얼즈그룹 포틴의 공장 중 하나가 완공되고, 그해 3분기부터 전기차용 실리콘 음극재 생산이 본격 가동되었다. 2023년 연산 2,000t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추가 증설을 통해 1만t 규모로 생산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 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대부분 사용되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정도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은 물론 충전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음극재로 꼽힌다.

음극재 시장에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은 2020년 6천 톤 규모에 불과했지만, 2027년 약 32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성장이 매우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바코-경상북도 업무협약(MOU)체결

이차전지 기업 유치

상주시는 2023년 4월 6일 (주)아바코와 총 3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평판디스플레이 설비 장비 개발 및 생산 기업인 (주)아바코는 OLED 분야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개발,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이차전지 공정 장비 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5년까지 상주 일

반산업단지 5만m² 부지에 이차전지 생산 기계 장비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북도와 상주시는 2023년 9월 18일 (주)새빛캠과도 5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탄산리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도전장

상주시는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 간, 기업-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선도형 국가사업 수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전망이다.

더불어 상주시는 청리일반산업단지와 이차전지 클러스터를 연계한 이차전지 클러스터 특화단지 추진 계획을 수립,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 공모에도 도전장을 냈다.

상주시가 공모에 제출한 이차전지 클러스터 특화단지 육성계획은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간 연계 강화 ▷핵심소재 개발·생산은 위한 Fast-track 강화 ▷이차전지 안정·신뢰성 평가를 위한 실증기반 확충 ▷융·복합형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첨단 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중에 특화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단지별 육성계획을 기반으로 세제 혜택, 용적률 상향, R&D·기반시설 관련 국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상주시는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이차전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의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편집국



지역축제장에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 준비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



축제장 배치도를 알아두고
비상대피 통로 확인



축제장에서 서로 헤어질 상황에 대비해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 정하기



위험표지판, 안전선 등이 설치된
출입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축제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안전요원에게 알리기



비슬산 참꽃문화제

비슬산 참꽃문화제가 2024년 4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양일간 비슬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재)달성문화재단 주관으로 개최된다.

비슬산 곳곳에는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유적들이 산재되어 있다. 천왕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능선은 수목으로 그려놓은 듯 아름답다. 전망데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낙동강 물줄기가 산지를 따라 굽이쳐 흐른다. 대견사를 돌아 조금 더 건다 보면 진분홍빛의 드넓은 화원이 눈앞에 펼쳐지고 군락을 가로지르는 걸음마다 참꽃이 피어나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비슬산 참꽃군락지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활짝 피어나 99만m² 대지위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화려한 봄날의 향연이 펼쳐진다.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올해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체험 행사 등 방문객이 자유롭게 축제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산신제를 시작으로 식전공연 및 개막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참꽃 생활문화예술회제, 반딧불이 버스킹, 참꽃프린지 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편집국

2024년, 집값 전망



국제 경제 불안으로 인한 한국 경제 침체 직면

집값 전망이 어둡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5% 하락 동향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국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금리와 맞물려 고공 행진을 했었다.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 거래가격만 보아도 전용면적 85㎡(32평형)의 거래가격이 15억 원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준금리 동반 인상으로 고금리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 행진으로 돌아섰고, 2022년 하반기에는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 분쟁의 여파로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대란 등이 발생하여 국내 물가가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전망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국면

부동산 시장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적용, 고금리의 지속 그리고 분양시장 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거래가격이 반등할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으로 주택매수를 진작시키고 있고, 안전진단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아파트 공급 확대 및 거래 활성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자산가치의 하락이 세계적 추세인 실정이다. 세계 경제는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국제경제 상황이 국내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도 2024. 2. 22. 기준금리를 9회 연속 동결

하면서 연 3.5%를 유지했다. 주요 이유로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연 3.5% 동결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5.5%로 한국과는 2%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경제는 금리 운영 뿐만 아니라 지난 11년간 실질GDP가 잠재GDP에 상당폭 미달함으로써 만성적인 부진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국면에 물가는 높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태에 처해 있어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이다.

국내 부동산 전망과 정책적 대안의 효과성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도 주택 시장은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초래되니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 학군이 좋은 곳, 호재가 있는 지역 등은 주택청약이 몰리거나 집값이 꿈틀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둔화·내수 침체, 대출이자 부담 증가, 그리고 실질임금(소득) 감소 등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수요를 진작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인 것이다.

주택 시장 현장에서도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가격 일치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매도인 측은 「아 옛날이여」를 떠올리며 아파트 가격을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 지점까지 떨어뜨리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한다. 반면, 매수인 측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고 더 기다려 보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올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 등에 기반하여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

값이 오를 것이므로 집을 구매해야 한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듯하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월별 시도별 종합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다세대 - 종합

출처 KOSIS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더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이용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투자수요보다는 매도 물량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관망세가 지배적인 주택 시장에서 당장의 투자자 수요 촉진 정책이 집값을 상승국면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요즘 사회문화적으로 최대의 이슈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집값의 상승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의 기대심리로 일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매수자들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위축된 주택 경기 환경에서 2024년 집값은 소폭 하락을 동반한 보합세를 전망해 본다.

편집국

'한복기능장 청담채한복 대표' 나진선미



바느질을 시작한지 30년이 넘는 나진선미대표(56세)는 한복업에 몸담은 것을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그리고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어린 시절 한복을 짓는 어머니의 모습과 해군이셨던 아버지의 해군 제복에서 그 섬세함과 깔끔함이 강렬하게 가슴속 깊이 와닿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복식 한복의 멋스러움에 매료되어 한복을 짓는 일에 앞만 보고 달려온 것도 그 어린 시절 받은 깊은 인상 때문이다.



전통복식에 매혹된 어린 시절의 성장기

대구 중구 대봉동에서 현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대표는 의상을 전공하여 양장 쪽에 잠시 몸담았다가 한복디자이너로 전환, 한복가로서 일생을 살아오고 있다.

한복장인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와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나대표는 지난 세월 동안 전통복식 한복의 품격과 멋스러움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옛 선인들의 전통복식과 그 역사에 대한 배움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나대표는 혼례복의 일종으로, 현재는 폐백복으로 남아있는 원삼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다.

나대표는 전통복식에만 고집하지 않고, 한복의 생활화, 대중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고름보다는 띠를 활용하면서도 한복전통의 멋스러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활한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레이스를 접목시킨 한복제작에도 능하여, '맞춤한복을 지을 때, 사람마다 개성 있게 안지를 걸지와 똑같은 색이 아닌, 예를 들어 회색치마 걸지에 안지는 핑크빛이 나게 해드린다'고 자신의 한복기법을 얘기한다.

때때로 기술적으로 자신의 한계상황에 부딪쳐 고객의 마음에 쏙 드는 한복제작이 어려운 한복종사자들에게 나대표는 직접 일대일 교습으로 그분의 한복 짓는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는 도움의 손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복에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장 인근에 공방을 마련하여 한복원단 조각으로 애완견 옷을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보석함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해보게 하는 등 한복의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한 여러 활동에도 열의를 쏟아붓고 있다.

이와 같이 나대표는 우리 고유의 전통의복 한복을 널리 보급하고 그 멋과 품격을 지켜나가는 우리옷 한복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온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복의 생활화와 대중화로 K-한복을 꿈꾸다

어느 화창한 날에 단아하신 중년의 여성분이 매장을 방문하였는데, 알고 보니 BTS의 멤버 슈가의 어머니셨던 일화를 얘기하며, 나대표는 한류의 중심에 있는 가수나 배우 등에게 한복을 지어주는 일을 소망하는 등 한복 한류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한다.

한복의 인기가 예전보다 못하고 그 종사자도 줄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나대표는 우리옷 한복지킴이로서 전통한복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한복의 생활화에도 힘쓸 것이며, 한복제작을 이어갈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대한민국 한복명장을 꿈꾸며

한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도록 국가차원의 한복제작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나대표는 한복웨딩디자인공모전, 한복경기대회 등 다수의 입상경력을 보유하며, 한복산업기사에서 한복기능장자격까지 취득하면서 한복제작의 기술숙련도와 한복의 품격을 높여오고 있는 바, 그 열정과 봉사정신까지 인정받아 대한민국 한복명장의 자리에 오를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경제 산책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Choice)의 연속이다. 선택을 위해서 합리적인 인간(Homo Economicus)은 경제활동을 할 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으려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양식을 '**경제원칙(Economic Principle, 經濟原則)**' 혹은 **경제주의(Economism, 經濟主義)**'라 한다.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은 경제객체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분배·교환·소비하는 경제행위이다. 경제활동에 따르는 문제를 경제문제(Economic Problem)라 하고, 경제문제와 관련된 현상을 경제현상(Economic Phenomena)이라 한다. 경제학(Economics)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자유재(Free Goods)는 존재량이 무한히 많아 돈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가리킨다. 반면, 경제재(Economic Goods)는 돈이나 노력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공기는 자유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세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깨끗한 공기는 자유재가 아니라 경제재이다. 공기 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한 돈과 노력은 물론 시간을 들여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자유재는 거의 드물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소비재(Consumption Goods)는 소비자가 소비에 사용하는 재화이고, 생산재(Production Goods)는 생산자가 생산에 사용하는 재화이다. 원재료·반제품·공구·기계·공장 등이 생산재에 포함된다. 생산재가 자연 자원과 다른 점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생산수단(Man-made Means of Production)이라는 점



이다. 한 재화는 용도에 따라 소비재 혹은 생산재 양쪽 다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밀가루는 소비자에 의해 수제비를 만드는 데 쓰이면 소비재이지만,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데 쓰이면 생산재가 된다. 경제학에서 생산재는 **자본(Capital)** 혹은 **자본재(Capital Goods)**라고 한다는 것에 주의하자.

서비스(Service)는 노동자 노동, 상인 도·소매활동, 의사 의료행위, 연구원 연구활동, 예술가 창작활동 등 생산·분배·교환·소비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유용한 행위를 말한다.

재화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는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Products) 또는 산출물(Outputs)이라고 한다. **자원(Resources)**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것으로서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 혹은 투입물(Inputs)이라고도 부른다. 자원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과 비인적자원(Non-human Resources)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노동·노하우, 기업가 정신(새로운 자원 조합을 만들어 내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Schumpter, 1934) 등이며, 후자는 토지·광물·석유 등과





같은 자연 자원과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재(자본(재))를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자원인 노동·토지·자본을 본원적인 생산요소(Primary Factors of Production)라고 한다. 경영학에서는 노동·토지·자본과 함께 기업이 정신을 덧붙여 본원적인 생산요소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경제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희소성(Scarcity)**이란 사회구성원의 욕구에 비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생산요소 혹은 투입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지칭한다. 자원을 아껴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 즉 최소비용을 들여 최대효과를 얻는 것을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라 한다.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합리적 선택 문제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자원 혹은 자원량이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효과(Effect, 效果)란 소비자는 효용 혹은 만족, 생산자는 이윤 혹은 수익을 뜻한다.

일정한 효과를 얻고자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하

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Cost, 費用)은 기회비용으로 다음 연재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다.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經濟的 效率性) 혹은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 經濟的 合理主義)’는 최대효과 원칙과 최소비용 원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최대효과라는 동전의 앞면과 최소비용이라는 뒷면이 온전히 있을 때 돈 혹은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서두에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경제원칙** 혹은 **경제주의**’라고 하였는데, ‘**합리적 선택, 경제적 효율성** 혹은 **경제적 합리주의**’와 같은 개념이다.

권기환 편집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20% 미만(소아청소년 130%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 (수행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1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189개 → 1,272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

2 특수식 지원 대상질환 확대

탄수화물 대사 질환인 당원병 환자를 위해 혈당 관리에 필요한 옥수수전분 구입비 지원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원 대상질환
기존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등 28개 질환
	저단백 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	
신설('24~)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 원 이내	글리코젠축적병(E74.0) 등 9개 질환

3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 완화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 최소화 및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 재산 산정 지역구분 개선: 3급지 → 4급지
- 재산기준액 최대 2.5억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대를 이어온 청년기업' 이화정 양식장



이화정 송어양식장 박도현(31세) 대표

송어양식장 불모지 농촌사회 상주에서 대를 이어 송어양식기업을 알차게 일구고 있는 청년기업인이 있다.

이화정 송어양식장 박도현(31세) 대표다.

이화정 송어양식장은 선대 조부인 고 박승철님이 1984년 전국 최초 암반지하수를 이용한 송어장을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87년 2대부친이 가업으로 이어받고, 최근 부친이 2선으로 물러나고 현재 박대표가 양식장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규모를 더욱 성장시켰다.

공성면 남상주로303에 위치한 1 양식장은 부지가 약 2,300㎡이고, 청리면 두곡길 38에 소재한 2, 3 양식장은 그 부지가 약 3,600㎡이며 양식장 건물에는 수조 칸이 6개에서 9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2,3양어장에는 품종개량을 위한 육종실험장도 구비하고 있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술 확보를 통한 양식장의 성장 기반 마련

초창기 선대 시절에는 양식정보와 기술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송어는 냉수성 어족으로 수온조절이 중요한데, 적정수온 13도~15도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양식장 건물에 차양시설을 하거나 히트펌프로 겨울에는 온도를 높이고, 여름에는 수온을 낮추는 식으로 수온을 조절하므로써 안정적인 양식환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 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농촌에 위치하다 보니 직원들을 고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양식장은 수조 청소가 중요한 파트인데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 손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화정양식장은 수조청소시 침전찌꺼기 즉 슬러지가 한곳으로 몰리게 하는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인력 사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현재 양식장종사 인원은 박대표 포함 4명으로도 운영된다.

송어는 성장단계가 알에서 치어, 중간종묘, 그리고 성어에 이른다. 이화정은 현재 채란은 위탁 납품을 받고 양식한 치어, 중간종묘, 그리고 성어를 전국 양식장이나 횡집에 출하 납품하여 매출을 높이고 있다. 현재 납품출하량이 한해 110톤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농업에도 디지털 스마트팜기술이 점차 적용되고 있듯이 이화정 송어양식에도 송어선별이나 사료 투입시 디지털 기계화·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친환경 양식환경 구현을 통한 인식 전환

양식장도 축사 이상으로 농촌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여겨진다는 것이 뜻밖이다. 오폐수의 환경오염을 우려한 것인데, 이화정은 수조물 정화에 있어 유수식이 아닌 순환여과식방식을 사용하여 정화된 물을 여러 번 재사용함으로써 오폐물방류를 최소화시켜 친환경 양식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이화정 양식장 내부

소비자 직거래와 어종 확대를 통한 사업 다각화로 매출 증대

박대표는 양식장 외에 직영 송어횃집도 운영하고 있다. 1직영점과 2직영점은 가까운 친척이 운영하고 3직영점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영횃집 이화정수산에서는 신선한 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는 밀키트 회세트, 찜용 반건조 송어세트 그리고 송어세비체 밀키트도 판매해 캠핑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화정은 송어업계 최초로 HACCP인증받은 최고등급의 사료만을 먹여 송어를 양식하며, 2009년 업체로도 송어업계 최초로 HACCP(AQ-0005) 인증도 받았다. 그만큼 고객들에게 건강한 최고 품질의 송어를 제공한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이화정은 송어뿐만 아니라 연어와 철갑상어도 사육하는데,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왕연어 양식에도 성공하여 매출 증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화정은 마이스터고 학생이나 코이카, 중국 예비창업자 등 여러 단체에서 견학을 할 정도로 양식업계에선 그 위상이 남다르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성장한 박도현 대표

박대표는 어려서부터 수산업에 도전해 성공하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 실현을 위해 부단히 달려왔다. 박대표는 부

경대학교에서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를 시작으로 같은 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 석·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현재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고, (사)한국송어양식협회사무부총장과 환동해 남북경제활동 포럼 위원을 맡아 오면서 양식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박대표는 송어 등 어종에 관한 공부와 연구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귀어귀촌지원센터 등에서 귀어희망자들에게 귀어전문가로서 양식장의 안정적 운영과 양식기술·정보 등을 전파하는 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23년에 양식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화정 송어회

박대표는 송어 등 양식장산업은 앞으로 전도유망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

어종에 관한 공부와 연구, 양식장운영의 기법 등을 꼼꼼하게 배우고 준비한다면 농촌사회에서도 누구나 부어인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편집국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론조사 및 종합학술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6년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과물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811-2820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꽃을 피우자."



김지향

달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달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도 겸직하고 있는 청소년전문상담사 김센터장은 평소에도 우리가 어떻게 남들과 소통하고 삶을 영위해나가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한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에게 성장의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에 가정불화, 가정해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방황과 학업중단 등으로 건전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김센터장은 어려움에 처한 학교 밖 학생들을 찾아내고 센터를 방문하게 하여 상담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주고 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취업·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직업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업체로 진로를 찾아 주고 있다.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매년 전원 합격이라는 결과도 낳는 등 센터장으로서의 말은 바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2년 전에는 트로트 가수 지망생 청소년을 센터교육실에서 연습을 하게 지원하고, 각종 관공서 등 행사에서

식전 공연무대 경험을 쌓게 도와주어 꿈을 잃지 않게 도와준 결과, 트로트 가수 지망생 청소년은 이제 당당히 페이를 받는 트로트 가수로 성장하였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한 남학생에게는 학업의 기회를 주어 명문대 연세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센터장의 성품은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센터장은 센터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의 애정까지 품은 성품으로 방황하는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역학교마다 순회하며 2년 전까진 성교육을, 현재는 청소년 상담 및 진로 등 컨설팅을 전담하는 김센터장은 항상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내일의 꿈을 향해 달려 갈수 있도록 모든 일에 열정을 다바치고 있다.

주위 동료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편집국



본보는 음식명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명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소관 학술연구기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으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대구 수성구 청수로 9길 24에 위치한 '중동감나무집'이 그 영예를 안았다.



바쁜 현대인에게 맛과 영양이 듬뿍담긴 보양식의 감동을 선사하는 '중동감나무집'

춥고 움추렸던 겨울을 밀어내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춘삼월 대구 중동 어느 한적한 주택가, 바쁜 현대인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보양식의 감동을 선사하는 집, 중동감나무집을 찾았다.

중동감나무집 음식의 주재료는 영양과 효능이 뛰어난 오리와 토종닭, 그리고 능이다.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체내지방의 축적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나 고혈압예방에 효과적이다. 노화방지도 탁월하며 고기 중 유일한 알칼리식품으로 면역력 향상 및 기억력에도 좋은 최고의 보양식이다.

토종닭은 우리나라에 사는 재래닭으로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두뇌발달과 세포생성에 도움이 된다. 피부건강과 면역력을 증진하고

리놀산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체력증진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능이는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고 항암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등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성인병 예방에도 그 효과가 우수하다. 버섯중에서 최고로 송이를 능가하는 평가를 받는다.

중동감나무집은 이러한 좋은 재료들을 전라도, 경북지역 산지에서 엄선하여 남품받아 음식의 품질을 최고로 유지한다.

중동감나무집은 그 백숙육수에 특별함이 숨어있다.

중 동 감 나 무 집 은
2016년 영업을 시작





하였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강나경 대표(61년생)의 경험과 노력의 결과로 비법육수가 탄생하였다.

강대표는 대학과정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였고, 식품회사 메뉴개발부서에서 17년간 근무하였다. 그러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중구 약전골목 약재상과 힘을 모아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끝에 중동감나무집만의 십전대보탕 기본 육수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를 보강하는 사군자탕의 약재인 인삼, 백출 등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의 약재인 당귀, 천궁 등에 더해 황칠나무, 오가피, 대추 등 18가지 약재를 넣어 오랜 시간 정성껏 달인 약물에 능이 달인 육수 및 표고 육수 등을 배합하여 토종닭·오리 백숙 등 요리의 육수로 사용한다.

그래선지 육수 국물은 맑으면서도 먹었을 때 깔끔한 맛과 깊으면서도 담백한 맛을 자아낸다. 마치 맛있고 건강한 보약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고운 육수로 만든 약 백숙을 손님상에 내놓음으로써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과 영양이 담긴 음식을 맛보이고 있다.

일화로 「투병 중에 잘 먹지도 못하는 임종 직전의 말기 암 환자가 중동감나무집 백숙의 국물맛에 반해 여러 번이나 중동감나무집을 찾았다」고 한다. 지금도 암환자들이 감나무집의 백숙, 그 국물 맛, 그리고 효능에 이끌리어 심심찮게 찾곤 한다.

중동감나무집은 대표메뉴인 능이 오리·토종닭 백숙 외에도 십전대보탕 능이 백숙, 전복 및 문어를 넣은 백숙 등 그 메뉴가 다양해서 20가지가 넘는다.

백숙에 나오는 토종닭도 고기가 쫄깃하고 담백하니 맛이 좋으며, 1인용 삼계탕 요리에는 최고의 삼계탕이라 불리는 「웅추」라는 토종닭 새끼를 사용해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사하고 있다.

강대표는 반찬재료가 되는 야채류 등도 대구 매천시장에서 엄선하여 신선한 재료들로 구입하고, 옛날식 백김치, 고추장아찌, 석박지, 깻잎 등 밑반찬을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저염식으로 담백하고 정갈하게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고춧가루 등 반찬의 원재료도 국내산만을 고집하고 있다.

백숙 음식에 같이 찍어 먹는 소금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볶아서 죽염을 배합하고 후추, 깨를 첨가하여 제공함으로써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그리고 오리로 만든 수제떡갈비도 메뉴로 직접 개발하여 인기가 높다.

중동감나무집은 2층 주택을 개조하여 음식점으로 단장하였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백숙의 맛과 영양에 더해져 단골손님도 부쩍 늘었다.

이렇게 중동감나무집 운영에 열정을 쏟으며 앞만 보고 달려온 강대표도 이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온정을 펼치고 있다. 2019년부터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에 소속되어 지역 봉사활동에도 힘을 쏟고, 장애인들에게 한 번에 삼계탕 300그릇에서 500그릇의 무료급식도 제공하곤 하여 지역환원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다.

편집국

청년들의 서울 이주. 그 해답은 무엇인가?

영남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윤정현



지역의 청년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대구를 비교해 보면, 사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에 있는 모든 문화적 인프라가 대구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리적 이점은 대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놀이동산을 가려면 잠실롯데월드를 제외하고는 최소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한 놀이동산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 경북대, 계명대 그리고 영남대 등 문화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가 있으며, 심지어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양아트센터도 존재합니다.

교육인프라 마찬가지로입니다. 수성구 2학군 소재 고등학교는 서울 8학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의료보건 관련 학과에 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표준점수 전국 석차 1등도 아마 대구 경신고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인프라도 좋은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런데 왜 청년의 인구들이 줄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뽑고 싶습니다. 하나는 명문대학교라 불리우는 대학들이 서울 인근에 있으며,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도 명문대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대학은 다양한 이유로 소극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항 한동대를 가보셨는지요? 포항 한동대는 지리적 우위를 찾기가 힘든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특성을 가진 대학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분야를 찾아 투자하고 대학 혁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대학 1차를 통과하였습니다. 비록 최종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지역 내 포스텍이라는 특수대학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대 졸업생들은 좋은 기업에서 선호를 하고 있을만큼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우수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유인정책을 쓰고 있으며, 연구 및 산학협력 분야의 변화, 교육혁신 등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대학 순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투자야 말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두 대학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대학은 어떨까요? 과거의 명성에 사로잡혀 공격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경쟁이라 생각하여 협업구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지역거점국립대학입니다. 지역거점국립대학은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주변 대학과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전략 등을 수립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역의 2등 3등 대학은 1등 대학인 거점국립대학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1등 대학이 견고하게 1등을 지키고,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특화대학으로 성장을 하여야 주변 대학 역시 동반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면을 빌어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 내 대학들이 힘을 모아 대구경북이라는 광역권 구분없이 협업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구와 인근 대학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 청년들이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실감입니다. 먼저 고교 성적으로 대학이 결정되다보니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진입하지 못하였다는 상실감이 먼저 들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도 이러한 상실감이 연결되 서울 본사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지역에서 성장을 한 청년들은 서울 본사로 일하는 것이 동년배 친구들에게 우월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저는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프라와 사람들이 있습니까! 굳이 서울을 가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지역의 자생분을 얻어가면 성장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절대 뒤처지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의 지역 이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역,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변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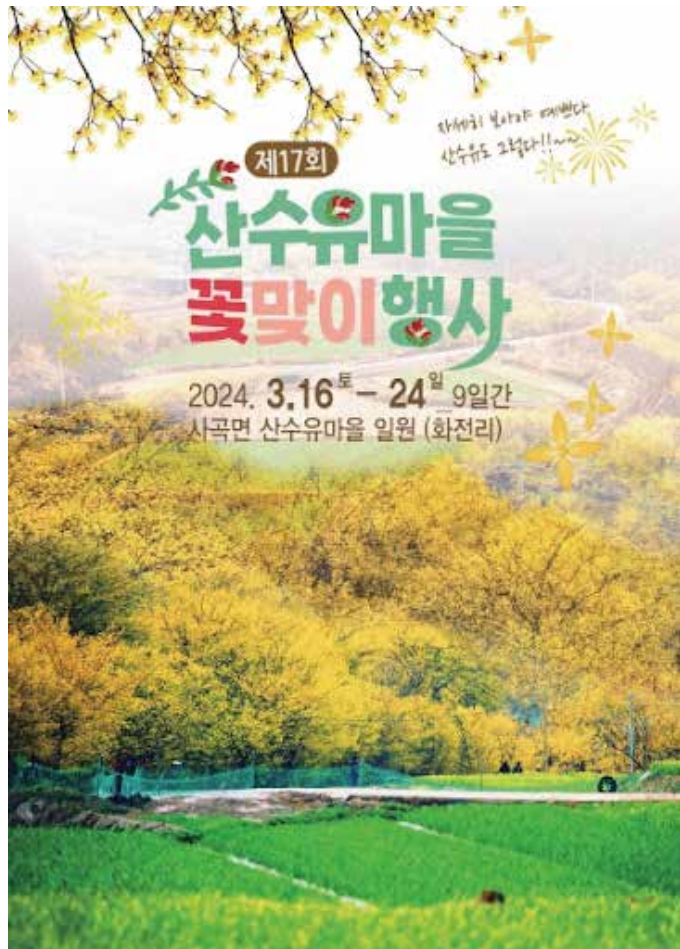
제17회 의성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

의성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가 2024년 3월 16일(토)부터 24일(일)까지 9일간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마을(산수유2길 2)에서 개최된다.

의성 사곡면 산수유마을은 300년 이상의 산수유나무 3만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해마다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산수유가 절정을 이룬다. 사곡면 화전리 일대는 산과 논두렁, 도랑둑으로 짙은 노랑 물감으로 채색해 놓은 듯한 산수유꽃의 행렬이 10리 넘게 이어지고, 일대 골고루 흩어진 산수유의 노랑 웅단 물결은 특히 화전2리 숲실이 유명하다.

지난날 살기 어려웠을 때 약재로 팔기 위해 산비탈, 논두렁 등에 드문드문 심어 놓았던 산수유가 의성 특산물 마늘밭 화전지에 노란 산수유 꽃무리를이룬 듯한 모습이 마치 노랑 물감을 통째로 부어 붓으로 쓱쓱 마른듯하다.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한 폭의 산수화 같은 산수유 마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사곡 산수유 마을 일대 산수유 군락지이다.

운영은 의성군과 산수유마을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수유 꽃길 걷기, 버스킹, 플리마켓 등이 시행된다.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



2024년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가 3월 22일 (금)부터 24일(일)까지 3일간 대릉원돌담길에서 개최된다.

벚꽃으로 유명한 경주에서도 대릉원 돌담길은 약 670m의 돌담길을 따라 핀 벚꽃나무들로 인해 왕릉과 벚꽃을 함께 담는 고즈넉한 벚꽃길로 유명한 명소이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와 고즈넉한 매력의 돌담길은 왕릉을 함께 담을 수 있어 사진 명소이기도 하다. 대릉원은 황남동에 있는 신라시대 고분군으로 신라시대 왕, 왕비, 귀족 등의 무덤 23기가 모여 있다. 그 이름은 「미추왕을 대릉에 장사지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따온 것이다. 올해 벚꽃축제에서는 벚꽃거리예술제, 벚꽃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 있는 공연 프로그램과 휴식시간으로 즐기는 감성피크닉, 아름다운 경관과 트렌드를 함께 담은 이색적인 경주 대릉원 포토존까지 준비되어 있다. 「함께해 봄」 체험과 벚꽃프리마켓, 벚꽃 F&B, 도로 위에서 즐기는 동심 가득 벚꽃놀이터, 무료 타투스티커와 사진인화 이벤트까지 경주 벚꽃의 추억을 무료로 만끽할 수 있다.

2024년 고령대가야축제



고령대가야축제가 3월 29일(금)부터 3월 31일(일)까지 3일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및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사)고령군관광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며, 가야시대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시대의 생활상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고령의 대표축제이다.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와 함께 다가오는 2025년 축제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현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샌드아트 공연, 창작뮤지컬 가얏고 「도둑맞은 새」공연, 지산동 고분군 야간 트래킹도 즐겨볼 수 있다. 모두의 귀를 사로잡을 「100대 가야금」 특별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대가야 이끼 테라리움, 대가야 방패만들기, 대가야 귀면화 그리고 대가야 토기 물레체험도 즐길 수 있다.



2024년 청도읍성예술제 및 제2회 대한민국퓨전국악대전



2024년 청도읍성예술제 및 제2회 대한민국퓨전국악대전이 3월 30일(토)청도읍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청도 읍성축조에서 유래되었던 읍성밧기를 재현하여 군민의 무병장수와 가정화목을 기원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전국 퓨전국악대전을 통하여 전통의 미래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이다.

청도읍성은 청도의 진산(鎭山)인 남산에서 청도천으로 뻗은 두 줄기의 능선 사이에 남고북저, 동고서저한 해발 100~122m의 구릉지와 일부 평탄지에 축조된 전형적인 평산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성곽길이는 약 1.8km이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며, 2005년 정밀지표 조사 및 보수·복원 정비 계획안 수립을 거쳐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동문지, 북쪽 성벽 일부 및 북문지, 서문지 등의 발굴조사를 거쳐 복원·정비되고 있다.

청도읍성예술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읍성밧기 재현행사, 축하공연, 지역예술인공연, 체험·전시행사·농특산물 판매 등이 개최된다. 퓨전국악대전은 축하공연과 본선 경연대회가 개최되며, 초대가수 서지오 및 박서진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그리고 많은 먹거리가 준비된다.

편집국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



2024년1월부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 및 시행되었다. 크게보면 적격심사기준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되었다. 적격심사의 경우 ㉠항의 1의 나 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다. ㉠항의 1의 다는 삭제되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인 경우 제25조 ㉠항의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으로 변경되었다.

윤일형 편집위원

2024년 적용할 4대 보험 요율 적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적용요율	비고 (보수액에 대한 비율)
국민연금보험료	4.5% (전년 동일)	「국민연금법」 -근로자4.5%, 사업주4.5%
국민건강보험료	3.545% 0.4591% (전년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근로자 0.4591%, 사업주 0.4591%
고용보험료	1.05% (전년 동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산업재해보상보험	0.8% (사업종류별차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시설관리(0.8%) * 임금채권보장보험 사업주 0.06%

기획재정부 발표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는 다음과 같다.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물가상승율 3.6% 반영한 단가임.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미반영분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6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행정안전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5가지 약속!



1. 일상이 안전한 나라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
-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2.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 지역주도 경제활력회복
-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

3. 일 잘하는 정부



- 정부혁신·현안해결 플랫폼 역할 강화
-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4. 함께하는 위기극복



-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어려운 민생 살리기 총력 지원
- 지방 행정·재정의 건전성 확보

5. 성숙한 공동체



- 민간단체 지원 투명성 제고
-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
-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



대구생활문화센터 「찾아가는 생활문화」 공연 희망 동호회 모집

「찾아가는 생활문화」란 생활문화동호회가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예술체험을 선보이는 활동으로, 3월 4일(월)부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취약기관 방문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찾아가는 생활문화」 참여 동호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생동지기 가입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60팀(480명) 가량 모집할 예정



이다. 「찾아가는 생활문화」는 두 가지 형태로 기획된다. 동호회가 문화취약시설을 직접 리서치하여 매칭하는 「찾아가는 생활문화 1」과 동대구역 및 노사평화의 전당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생활문화 2」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며, 선정된 팀은 담당지역의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교통약자들과 지역 외 원거리,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파견 활동을 통해 따뜻한 문화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대구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생동지기로 등록되어 지역 내 공연 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생활문화동호회가 신청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3월 4일(월)부터 3월 20일(수)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대구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053-430-5611)

대구·광주 위원 위촉장 전달 및 달빛동맹발전회의 개최 등



대구시와 광주시는 2월 28일(수) 대구시 산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달빛동맹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고 달빛산업동맹 등 경제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대구·광주 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6

명, 철도·도로·공항 등 SOC·문화체육·CEO·청년·여성·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촉직 위원 22명(대구·광주 각 11명)으로 총 28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달빛동맹발전위원회는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광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등을 심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달빛고속화철도 건설, 문화예술 교류 등 총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향후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산업동맹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시민 여가공간 제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사업', 시민을 위한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이 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7억 원을 확보해 구·군비와 매칭하여 '생활기반사업' 51억 원(국비 46, 구·군비 5), '생활문화사업' 34억 원(국비 31, 구·군비 3), 총 8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지원사업 중 '생활기반사업'은 현재 13개소로 사업 종류로는 금강동, 가창면 등의 지역에 농로 확장·정비 7개소, 평광동 등의 지역에 배수로 정비 2개소,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 팔현길 도로 확장 등 도로 정비 3개소이다. '환경문화사업'은 5개소로 팔공산 부동지 주변 생태탐방 데크 등을 설치하는 녹색길 부동지 경관사업, 와룡산 숲 체험 놀이터 시설을 도입하는 여가녹지 조성사업, 서당지 및 와룡산 누리길 조성사업, 금호강 조류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전망대 경관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이 잘 된 자연경관을 활용해 산책로, 자전거도로, 숲 체험 등 시민들의 힐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우 차장

경북도는 2024년을 「새마을운동 대전환 원년」으로

경북도는 2024년을 「새마을운동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대외적인 새마을세계화사업을 국가 변혁프로젝트로 대전환하고, 국내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청년세대로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 변혁 프로젝트는 현재 스리랑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며, 스리랑카에는 중앙부처 내 새마을운동 전담 기구를 설치했고 중앙아프리카공화



국에서는 대통령실 산하에 새마을위원회를 설치했다. 두 나라의 성과에 따라 향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청년과 MZ 세대의 참여를 높여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한다. 우선,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45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 새마을 연대를 10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 구성하여 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확대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은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정체성이자 K-브랜드 콘텐츠이므로, 더욱 강화해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준높은 기획공연! 경북도 「同樂 콘서트」 폭발적 열기!



경북도는 자체 첫 공연인 '동락 콘서트'를 기획하고, 3월 7일 오후 7시 30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2024 국악 트롯 콘서트 동락(同樂)'을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남녀노소,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자는 의미인 '동락'을 주제로 국악과 트롯이 조화를 이룬 무대로, 관객 참여형 공연을 컨셉으로 SNS 등을 통한 수요 조사로 공연 가수와 출연진을 섭외하였다. 공연은 이철우 지사의 「대(大)북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악과 관현악

이 조합된 영남국악관현악단의 라이브 연주, 전통 무용과 장구춤, 국악인 박애리, 미스트롯 정미애 그리고 미스터트롯 김희재의 노래와 라이브 연주가 관람객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은 티켓링크에서 사전 예매했고 예매 시작 6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어 신도시 주민들이 지역 공연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문화 공연 관람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을 위해 우선 지정 좌석을 제공해 문화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한 공연으로 의미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도민들과 함께 공연을 즐겨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 기회를 더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 후속으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의 승리를 염원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대규모 어린이 뮤지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구성협의체 개최

경북도는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구성협의체를 개최하였고 향후 차기 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위원구성협의체는 성별 및 경력별로 자치경찰위원이 균형 있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 간 사전 협의체로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북도의회 및 경북교육청 등 각 기관의 지명을 통한 5명의 위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1기 경북자치경찰위원의 임기가 2024. 5. 19 일자로 3년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 구성에 따른 후보를 관계 기관에 추천 받기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월 28일 개최된 회의에서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기능과 역할, 제2기 위원회 구성 절차와 추진 일정 등을 소개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 안내를 통해 향후 자치경찰위원 추천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용우 차장

■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은 우리 사회가 묵시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불편한 사실로 인하여 분열과 불신으로 치유할 수 없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남. 따라서 경영저널은 불편한 진실을 알려 관계자 및 정부 당국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대학 정시, 모든 것을 1월 중으로 마감해야

최근 일부대학들은 1월중으로 합격자 발표

정시 최종마감은 매년 2월 21일경으로 입시생과 입시생 가족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교육부 당국과 대학교는 정시 최종마감일을 1월 중으로 마감할 것을 요구한다.

입시생과 입시생 가족들은 입학기준일이 매년 3월 초이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없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대학입시제도는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고 있다.

대입시험은 매년 11월 중순에, 수능성적 발표일은 12월 초에, 그리고 정시 최초합격자를 2월 초에 한다.

2023년 수시 등록기간은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수시 미등록 총원 마감일은 12월 29일까지다.

그러나, 2023년 정시는 원서접수 2024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가 2024년 2월 6일이다.

정시 등록기간은 2월 7일부터 13일까지이며,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일은 2월 21일까지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경희대 등은 매년 1월 초부터 말까지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지만, 등록 마감일은 여전히 2월 말까지이다.

이가윤 기자

‘대경인재개발원’은
경영평가사, 리더 역량개발, 그리고 인재양성 등
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및 프로그램

- AI·인재양성
- 경영평가사 자격수여
- 학점인증제 및 교육훈련
- 리더십 역량개발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펀(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테마별 맞춤 특강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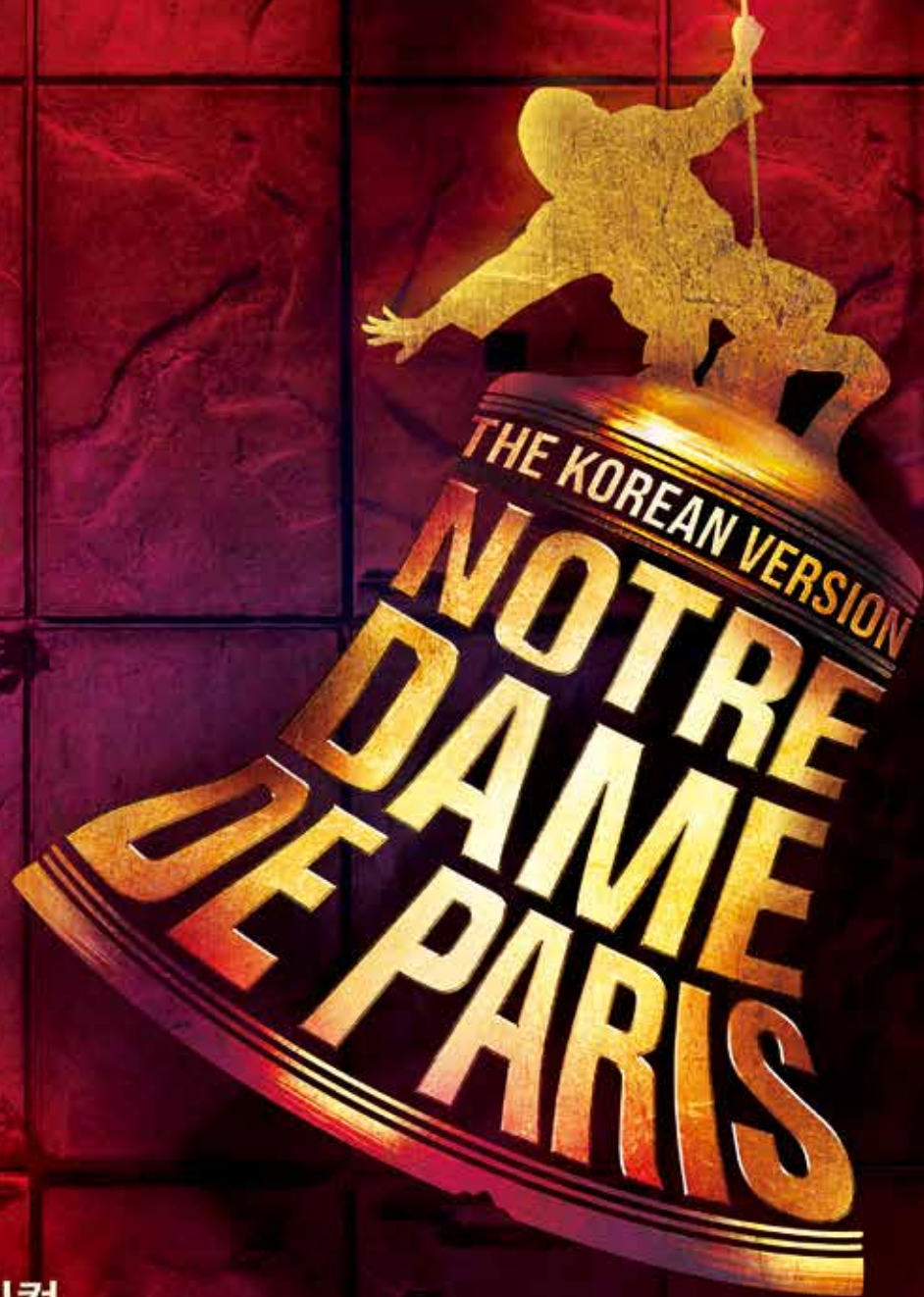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0, 그루타워 502호
(대흥동 873-1)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경북본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Original Book&Lyrics LUC PLAMONDON | Music RICCARDO COCCIANTE | Korean Lyrics CHANG HARK PARK



뮤지컬

노트르담드파리

By Special Arrangement with ENZO PRODUCTS

Director Gilles Maheu | Choreographer Martino Müller

2024. 4. 12~4. 21  계명아트센터

정성화 양준모 윤형렬 유리아 정유지 솔라 마이클리 이지훈 노윤 외

예매 1588-7890 티켓링크 1544-1555 인터파크 문의 053-762-0000 파워엔터테인먼트(주)

주최 대구 MBC 주관 (주)파워포엠 파워엔터테인먼트(주) 제작 mast